



올 해로 세 번째를 맞은 임실N치즈축제가 기대 이상의 대성공을 거두면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 지난해 21만명에 이어 올해는 45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초대박'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특히 추석연휴를 전후해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찾은 관광객이 급증, 축제 이전부터 10만여명이 찾았고 축제기간에만 35만여명이 방문해 무려 45만여명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올해 축제의 대성공에 힘입어 임실군은 '웃어봐요! 치즈 행복 쭉~'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크게 웃음짓고 있다. 대규모 전국 관광객 유치에 400억원에 달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내면서 임실군 곳곳이 행복이 넘쳐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대한민국, 그리고 전북도내 아주 작은 3만인구의 농촌지역이 일궈낸 축제의 추억을 29일 뒤늦게나마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추석연휴 기간 노린 전략적 판단 적중
관광객 45만명 방문 매출 400억원대 달성

축제는 '대성공'

▲역대급 신기록 남긴 초대박 축제로 대성공

지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열린 2017 임실N치즈축제에는 명절 연휴를 맞아, 가족·친지 등과 함께 찾아온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올해 축제기간을 전후해 약 45만여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추산되면서, 명절연휴 특수를 톡톡히 누리며 축제로 기록되고 있다.

축제개막 이전부터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임실IC 주변은 크게 밀렸고, 축제가 시작된 6일부터는 톨게이트 인근 고속도로는 물론 임실읍내 거리까지 온통 차들로 가득차면서 초대형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셔틀버스 역시 15분 간격으로 운행했지만, 임시승강장인 임실군청과 공설운동장 등에 관광객들이 크게 몰려 장사진을 이루면서 한시간 이상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았다. 축제장을 찾았다가, 물러드는 인파에, 아예 포기하고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연휴기간 노린 전략적 판단 '적중'

올해 임실N치즈축제가 성공한 배경에는 열흘간의 긴 추석연휴를 축제기간으로 정한 전략이 제대로 먹혔다는 분석이다. 추석명절 연휴를 피해 축제일정을 잡은 타지차와는 달리 임실군은 명절연휴 기간을 축제일정으로 정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명절 연휴기간에 축제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내박 아니면 쪽박'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쪽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4일 추석명절 직후인 6일부터 9일까지를 축제기간으로 정함으로써, 축제를 전후해 남은 연휴기간동안 즐길거리를 찾던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심 민 군수의 전략적 판단과 과감한 추진력이 큰 몫을 차지했다. 심 군수는 "오래된 명절기간에 여행지를 찾지 못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축제장을 찾을 것"으로 판단,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다. 그는 작년 축제가 끝난 직후부터 올해 축제를 준비하며, 축제 관련 세심한 부분까지 일일이 챙기는 등 세심하고 철저한 준비를 진두지휘했다.

▲특목튀는 신선한 프로그램 큰 매력

올해 축제는 '웃어봐요! 치즈, 행복 쭉~'이라는 슬로건으로 치즈라는 소재를 최대한 살려낸 10개 테마의 80여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개막 퍼포먼스인 '하늘에서 치즈가 내린다'면에서는 임실에서 생산된 청정원유와 하늘에서 파치요정이 2000여개의 치즈를 떨어뜨리는 획기적인 장면을 연출,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개막식 축하공연에는 인기 가수 홍진영과 VIXX, 왠와리 등이 축하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하며 축제분위기를 한껏 띄웠으며, 올해 처음 시도한 야간행사인 아모르파티에는 인기방송인 박명수가 직접 DJ로 출연하는 등 축제의 밤을 뜨겁게 달궜다.

높은 인기의 훈남셰프인 최현석 셰프도 출연해 임실N치즈 요리의 참맛을 알렸으며, 우유드림 행복드림 퍼레이드에서는 마칭밴드, 치즈요정들이 관광객들과 어울려 유행전통춤을 선보이며,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전국치즈창작동요대회와 어린이치즈요리 경연대회를 비롯한 임실필름농악보존회의 춤추는 상쇠 등의 이색행사도 펼쳐졌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인 8m짜리 국가대표 왕치즈피자 만들기 행사에는 200여명의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몰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기념품에 오른만큼 '대왕피자'를 완성, 관광객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임실치즈의 아버지 지정환 신부가 축제장을 방문해 300여명의 전국 관광객들과 함께 치즈나라 치즈범벅 모자이크 행사를 통해 임실치즈사 50년사를 기념했다. 축제기간 내내 35사단 군악대공연이 펼쳐지면서 35사단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특수효과도 누렸다.

▲천만송이 국화꽃 향기에 안소함우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 일대를 수놓은 천만송이 국화꽃도 대규모 관광객 유치에 일등주역이다. 지난 해 축제때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천만송이 국화꽃은 올해도 역시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으며, 6만여명의 광활한 테마파크 일원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장식하며,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청정임실에서 자란 안소함우 고기와 대폭 확대인 판매된 임실N치즈와 관련 유제품, 고품질의 농축특산물 제품 등도 인기를 끌면서, 임실N치즈의 브랜드 가치 상승 및 청정지역 임실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등 400억원에 달하는 직간접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임실N치즈와 임실N치즈피자는 연일 매진행진을 기록하며, 치즈와 피자를 사고싶어도 사지 못하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등 임실N치즈와 관련제품 판매량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심 민 군수의 소감

"기대치 훨씬 넘어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놀라웠다"

심민 임실군수는 "정말 꿈만 같다. 지난해 두 번째 축제에도 21만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주셔서 너무 기쁘고 꿈같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뭐라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행복하다. 원래는 30만명을 목표로 삼고, 이 역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다들 생각했다. 그런데 명절 연휴와 겹치면서 기대치를 훨씬 넘어선 45만여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주셔서 놀라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 군수는 "앞으로도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 우리 임실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세계적인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년 100만명이 찾는 글로벌 축제로 도약

임실군은 그러나 올해의 대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서둘러 내년 축제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축제의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다소 부족한 부분은 세심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계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빠른 시일내에 축제 전반에 관한 성과 분석과 함께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 내년도 추진방향과 단계별 로드맵 확정 등을 늦어도 내년 3월말까지는 완료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18년도 축제를 더욱 더 철저히 준비해 향후 5년 내에 매년 100만명이 찾는 축제를 만들어 가겠다는 게 임실군의 야심찬 포부다. /임실=진홍영 기자

